연구논문 ▮『항도부산』 제42호, 2021. 8, 271~302 DOI : https://doi.org/10.19169/hd.2021.8.42.271

조선통신사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을 활용한 역사문화콘텐츠 원형복원 사례연구

조 정 윤*

| 목 차 |

Ⅰ. 들어가며
Ⅱ. 조선통신사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과정과 의의
Ⅲ. 한일 등재 기록물 현황 분석
Ⅳ. 기록물 활용을 통한 원형 복원
1. 조선통신사 행렬재현
2. 조선통신사선 항해
3. 마상재 재현
Ⅴ. 결론

| 국문초록 |

한일 평화 교류의 상징인 조선통신사 관련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한일 공동등재 되어 인류의 소중한 문화유산이 되었다. 등재를 주도한 부산의 경우 역사적으로 한일 교류의 거점도시로서 조선통신사는 도시의 소중한 문화자산이다. 세계기록유산 등재 후 기록물의 보존을 넘어 활용을 통해 가치를 확산해야하는 과제를 부여 받고 있다. 기록물의 활용을 통해 유산이 가지는 성신교린이

* 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장 / operagoer@gmail.com

라는 인류 보편적 가치를 세계인이 공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일 공동 등재 기록물 중 행렬도, 선단도, 마상재 관련 기록물의 현황과 그림자료를 분석하여, '보존의 기록물'이 조선통신사 행렬 복원, 통신사선 항해, 마상재 재현이라는 문화 콘텐츠를 통해'활용의 기록물'로 역할하게 되는 방안을 제시한다. 이러한 조선통신사 주요 기록물의 원형 복원은 新조선통신사로 태어나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개선의 새로운 미래를 제시 할 것이다.

주제어 : 조선통신사 기록물, 세계기록유산, 원형복원, 행렬도, 통신사선, 마상재, 新조선통신사

Ⅰ. 들어가며

부산시는 2017년 부산의 10대 뉴스로 '조선통신사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첫 번째로 꼽았다. 부산시민들은 국내외 언론을 통해 조선통신사 세계기록유산 한일 공동 등재가 가져다 준 직간접적 효과를 실감하게 되었다. 등재 이후 부산문화재단이 운영 중인 부산시 동구 범일동 소재 '조선통신사 역사관'에는 국내외 많은 방문객이 찾고 있으며, 그동안 조선통신사 관련 사업을 하지 않았던 국내외 지역들도 상호 교류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는 한일 양국의 (재)부산문화재단과 NPO법인 조선통신사연지연락협의회(朝鮮通信使緣地連絡協議會)[1]가 중심이 되어 공동 신청서를 제출(2016년 3월)하였고, 2017년 10월 31일 등재가 최종 확정되었다. 조선통신사는 대립과 갈등을 반복하고 있는 오늘날 양국 관계의 해법을 제시하고 있는 만큼, 양국 민간단체에 의한

1) 조선통신사와 관련 있는 일본의 연고지역 중심으로 1995년 11월 결성되었다. 현재 일본의 19개 지자체와 62개 민간단체, 100여명의 개인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현재 사무국 운영은 쓰시마시(對馬市)에서 담당하고 있다.

기록물의 유네스코 공동등재 추진은 양국의 합의에 의한 문화자산의 공유라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지금과 같이 경색된 한일관계에서 조선통신사라는 긍정의 역사와 기억을 복기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한일 양국 국민들의 인식이 이를 잘 대변해준다. 부산문화재단은 조선통신사 세계기록유산 등재 1주년을 기념하여 한일 양국 시민을 대상으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한일공동 등재에 대한 인식조사'를 2018년 5월부터 9월까지 조선통신사 한일 행사 일정에 맞춰 5차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한일 공동등재로 인한 한일관계 개선의 영향에 대해서 한국 83.1%, 일본 응답자 90.9%가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한일 양국 최초로 실시한 이번 인식조사를 통해 한일 양 국민들이 한일 관계가 '긍정의 기억' '긍정의 역사'인 조선통신사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부산의 경우 역사적으로 한일 교류의 거점도시로서 조선통신사는 도시의 소중한 문화자산이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목록에도 국립해양박물관, 부산박물관이 소장한 귀중한 자료 10점이 등재되어 세계적으로 가치를 인정받았다. 부산문화재단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신청 기관으로 한일 양국의 조선통신사 사업 및 기록물의 플랫폼 역할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등재 후 4년이 지난 지금까지 기록물 관리 및 보존, 홍보 및 활용에 대한 양국의 제도적인 체계는 갖추어지지 못하고 있다. 조선통신사 세계기록유산은 한일 공동등재로 인해 기록물이 한일 양국 다양한 소장처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물리적, 공간적, 지역적 한계로 인해 한일 양국 국민들은 기록물 정보를 접할 기회가 제약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향후, 한일 양국은 기록물의 아카이빙 및 공동관리, 기록물 보존, 홍보, 활용에 관한 다양한 연구와 과제를 부여받고 있다. 최근 양국의 문화유산관련 정책도 보존과 보호로부터 활용의 관점으로 바뀌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한일 양

국 기록물의 현황과 자료를 분석하여, 기록물 등재목록을 기반으로 하여 조선통신사 문화 콘텐츠 활용 방안 사례를 제시한다. '보존의 기록물'이 조선통신사 행렬 복원, 통신사선의 항해, 마상재 재현이라는 문화사업을 통해'활용의 기록물'로 역할하게 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본 연구는 목적으로 한다.

Ⅱ. 조선통신사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과정과 의의

1.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의 등재 여정

2012년 5월, 부산의 조선통신사 축제 기간 중 일본의 조선통신사 연고도시 전국교류대회가 부산에서 열렸다. 부산문화재단은 축제 만찬회에서 조선통신사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한·일 공동 등재를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일본의 조선통신사 연지연락협의회가 화답하면서 유네스코 한일 공동 등재를 위한 여정에 오르게 된다. 조선통신사가 임진왜란 이후 12번 '평화의 길'을 떠났던 것처럼 공동 등재를 위한 학술회의도 한·일 양국을 왕래하며 12번 개최되었다. 등재 목록 선정부터 신청서 내용을 구성하기까지 한일 양국은 때로는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이때마다 한·일 학술위원, 실무진 사이의 깊은 신뢰 '상호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조선통신사의 정신이 한층 빛을 발휘하게 되었다. 한일 양국에 산재해 있는 조선통신사 관련 기록물 중 세계기록유산 등재 원칙[2]에 맞는 자료를 정하기 위해 양국은 의견을 모았다. 최

2) 유네스코 등재 기준은 크게 다음과 같은 3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①진정성이 있고, 독창적이며 비대체적인 유산일 것(원본, 유일본), ②세계적 관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

종적으로 [외교 기록] [여정 기록] [문화교류 기록]의 3가지 관점으로 등재목록을 구성하여 한일 양국 111건 333점으로 최종 등재를 신청하게 된다. 2016년 3월 30일 유네스코 사무국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국제자문위원회의(IAC)를 거쳐 2017년 10월 31일 등재가 확정되었다.

2. 인류가 보존해야 할 평화교류의 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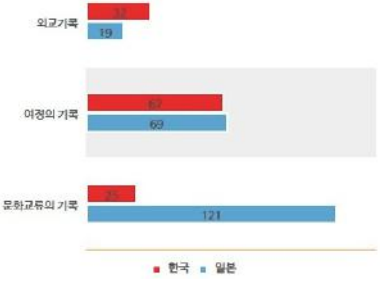
조선통신사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한일 공동 등재는 양국의 민간주도로 이루어낸 성취이자, 지역문화의 저력을 과시한 사례로 평가 받고 있다. 조선통신사는 일본의 침략전쟁으로 단절된 한일 양국의 외교관계를 회복하고 대등한 교류를 통해 상호인식의 폭을 넓힘으로서 양국은 물론 동아시아의 평화 구축에 크게 기여했다. 조선통신사 관련 기록물은 한일 양국이 대립과 갈등을 넘어 평화 구축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으로 세계에서 그 유례가 드문 만큼 인류가 보존해야 할 가치가 있는 기록유산이라 할 수 있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목록 중 국내 최초 복수국가 등재이자 한일 공동 등재라는 점도 높이 평가 된다. 또한, 국가 중심에서 한일 양국 지역과 민간이 중심이 된 최초 등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선통신사 기록물은 한일 양국의 다양한 소장기관과 유산(37개 소장기관과 소장유산 111건 333점)이 등재되었다는 점도 눈에 뛴다. 무엇보다, 부산시 최초 세계유산 등재로 부산시민이 느끼는 조선통신사에 대한 존재가치(existence value), 긍지가치(prestige value), 상속가치(bequest value)가 극대화되었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국내외 주요언론이 주목한 등재였으며, 한일 문화교류의 새로운 지평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닌 유산일 것(보편적 가치), ③관리 계획이 서 있을 것이다.

Ⅲ. 한일 등재 기록물 현황 분석

1. 한일 기록물 등재 현황

조선통신사 기록물은 한국 63건 124점, 일본 48건 209점으로 총 111건 333점이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다. 한일 공동 등재 기록물은 [외교 기록] [여정 기록] [문화 기록]의 3가지 주제로 분류되었다. 외교 기록은 한국이 32점으로 일본의 19점에 비해 양적인 우세를 보인다. 여정 기록은 한국이 38건 67점, 일본이 27건 69점으로 비슷하나, 문화교류 기록에서는 한국 23건 25점, 일본 18건 121점으로 한일 간 양적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난다. 조선통신사의 역사적 맥락을 생각한다면 유물의 한일 간 양적 차이의 비대칭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1607년부터 1811년이라는 과거 12회에 걸친 조선통신사 일본 사행의 시간성, 공간성, 특수성을 감안하면 기록물 자료의 비대칭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측면도 있다. 등재 기록물의 양적인 성격만으로 분석하였을 때 당시 한국은 조선통신사를 '외교 기록'에 일본은 '문화교류'에 중심을 두는 듯 보이나, 기록물의 내용과 당시 조선통신사의 역사적 전개과정은 오히려 그 반대로도 해석될 수도 있어 단순 비교는 적절치 않다고 할 수 있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한일 기록물의 주제별 분류 현황은 아래의



기록물 등재 현황	외교 기록	여정 기록	문화교류 기록	총계
한국(건/점)	2건 32점	38건 67점	23건 25점	63건 124점
일본(건/점)	3건 19점	27건 69점	18건 121점	48건 209점
계	5건 51점	65건 136점	41건 141점	111건 333점

<표 1> 조선통신사 세계기록유산 한일 공동 등재 기록물 현황(연구자 작성)

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2. 한일 기록물 자료별 분류 현황

한일 양국의 등재목록 중 '외교 기록'은 문집, 책, 공문서 등 텍스트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한일 양국 도합 5건 51점의 문서 자료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외교라는 공식적인 업무를 감안하여 공문서 위주의 텍스트를 기반으로 할 수 밖에 없는 이유다. '여정 기록'은 한일 65건 136점 중 그림 자료가 29건 43점으로 가장 많이 등재되었다. 세계기록유산 중 그림은 여정 및 행사의 실황과 두 나라의 문화교류 양상 및 관계를 입증하는 생생한 자료로서 높은 가치가 있으며, 미술사적 가치에 있어서도 당시 방일 화가들의 회화 활동과 회화 관련 문헌기록의 실증물로서 자료의 가치가 있다. 여정 기록의 국내 등재 목록 중 그림은 모두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인 작자미상의 인조14년통신사입강호성도(仁祖14年通信使入江戶城圖, K.Ⅱ-34)와 1748년 무진사행(戊辰使行)의 수행사원 이성린(李聖麟)의 사로승구도(槎路勝區圖), 1764년 갑신사행(甲申使行)의 별화원으로 활동한 변박(卞璞)의 왜관도(倭館圖, K.Ⅱ-37)가 국내 목록으로 등재되었다. 문화교류 기록물의 한국 소장 조선화는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한 김명국(金明國)의 달마절로도강도(達磨折蘆渡江圖, K.Ⅲ-7), 부산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변박(卞璞)의 묵매도(墨梅圖, K.Ⅲ-8)가 있다.[3)]

여정의 기록 일본 등재 기록물중 주목해야 할 점은 23건 34점의 그림 자료이다. 조선통신사의 당시 모습이 일본인의 시각에서 표현되어 역사적 흥미를 끄는 자료가 많다. 일본이 등재한 여정 기록 자료는 시각적

3) 부산문화재단,『(2017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기념 도록) 조선통신사에 관한 기록』, 2018, 272~276쪽.

데이터 자료 분류	외교 기록		여정 기록		문화교류 기록	
	서화 (image)	문서 (text)	서화 (image)	문서 (text)	서화 (image)	문서 (text)
한국(건/점)	-	2건 32점	6건 9점	32건 58점	13건 14점	10건 11점
일본(건/점)	-	3건 19점	23건 34점	4건 35점	6건 6점	12건 115점
계	-	5건 51점	29건 43점	36건 93점	19건 20점	22건 126점

<표 2> 한일 공동 등재 기록물 자료별 분류 현황(연구자 작성)

이미지 자료가 많은데 크게 3가지 분류인 '향응기록(供応記錄)', '기록화(記錄畵)', 감상화(鑑賞畵)'로 구별된다. 향응기록(供応記錄)은 막부(幕府)의 지시에 따라 조선통신사 접대를 담당한 각 번(番)의 공식 문서 기록이나, 조선통신사 접대를 위해 준비된 숙사의 개요를 그린 조선통신사영접소회도(朝鮮通信使迎接所繪図), 조선통신사가 왕래하는 길이였던 조선인가도(朝鮮人街道)를 그린 고슈가모우군 하치만쵸 총회도(江洲蒲生郡八幡町惣繪図) 2점은 그림자료이다. 감상화(鑑賞畵)는 조선통신사를 주제로 저명한 화가가 제작한 예술성 높은 그림이 많은데, 특히 '조선통신사환대도병풍(朝鮮通信使歡待図屛風)'은 에도성(江戶城)내의 국서전달 모습 등이 그려져 있는 유일한 것으로 예술성과 함께 기록화로서로의 가치도 높다. 기록화(記錄畵)는 국가적인 행사였던 조선통신사 방문의 모습을 시각적으로 전하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크게 조선통신사 행렬을 묘사한'행렬도(行列図)', 조선통신사선을 그림으로 표현한 '선단도(船團図)'로 구성된다.[4] 행렬도(行列図)와 선단도(船團図)는 일본 등재 목록 중 기록화로 분류되며, 조선통신사 행렬 및 통신사선 항해 원형 복원의 중요한 역사적 고증자료이다.

4) NPO法人 朝鮮通信使縁地連絡協議會,『ユネスコ[世界の記憶] 朝鮮通信使に關する記錄』, 2020, 31~32쪽.

Ⅳ. 기록물 활용을 통한 원형 복원

1. 조선통신사 행렬재현

1) 행렬도(行列圖) 한일 등재 기록물

국내 등재목록 중 가장 눈에 띄는 그림 작품은 단연 조선통신사행렬도(朝鮮通信使行列圖)라 할 수 있다. 여정의 기록 총 38건 67점의 자료 중 행렬도(行列図)는 인조2년통신사행렬도(仁祖2年通信使行列圖, K.Ⅱ-33), 인조14년통신사입강호성도(仁祖14年通信使入江戶城圖, K.Ⅱ-34), 숙종37년통신사행렬도(肅宗37年通信使行列圖, K.Ⅱ- 35)가 있다. 인조2년통신사행렬도(仁祖2年通信使行列圖)는 국립중앙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등재 기록물로 1624년(인조 2년)의 통신사 일행을 그린 작자미상의 그림 기록물이다. 행렬의 전체 모습을 스케치한 것으로 실제 사행의 행렬에 참여한 인원이 대폭 생략되어 있고 복장과 인물의 표정도 도식적으로 그려져 있으나, 동 기록물은 현존하는 행렬도 중 가장 오래된 그림으로서 가치가 있다.

<그림 1> 한국 등재기록물 K.II-33 인조2년통신사행렬도(仁祖2年通信使行列圖)

인조14년통신사입강호성도(仁祖14年通信使入江戶城圖)는 국립중앙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등재 기록물로 1636년(인조 14년) 제4차 통신사 일행이 에도성(江戶城)(江戶城)에 들어가는 모습을 그린 행렬도로 볼 수 있다. 그림 속에 양의(良醫)와 제술관(製述官)이 등장하고 화풍(畫風)도 18세기 이후의 양식적 특징을 보이고 있어 1719년 이후의 통신사 행렬도임을 알 수 있다. 그림의 각 인물 상단에 행렬에서 맡은 역할을 짐작할 수 있는 직책이 기재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동 기록물은 현존하는 행렬도 가운데 유일하게 조선화원이 그린 작품으로 통신사 일행이 에도성(江戶城)에 들어가는 모습이 소상하게 묘사된 등성행렬도(登城行列圖)로서 가치가 있다.5)

<그림 2> 한국 등재기록물 K.II-34
인조14년통신사입강호성도(仁祖14年通信使入江戶城圖)

숙종37년통신사행렬도(肅宗37年通信使行列圖)는 국사편찬위원회가 소장한 1711년 조선통신사 행렬도로 당시 제작된 그림 중 완전히 남아 있는 유일성을 인정받는 기록물이다. 행렬의 순서와 배치할 교군, 인부, 말 수를 사전에 정확히 파악해 두기 위해 그린 것으로 행렬에 착오를 없애기 위한 준비의 일환이었다.6) 막부(幕府)의 명령에 따라 쓰시마번(對馬藩) (對馬藩)의 화가인 다와라 기자에몬(俵喜左衛門)이 에도의 민간

5) 부산문화재단, 앞의 책, 171쪽.
6) 부산문화재단, 위의 책, 177쪽.

화가 40여명을 동원해서 그리게 한 4종의 행렬도(도중행렬도, 등성행렬도, 귀로행렬도, 귀국행렬도)로 14점을 제작했다. 특히, 동 행렬도는 1711년 신묘통신사 사행을 그린 것으로 한일 양국에 남아 있던 신묘(辛卯) 통신사 그림 자료가 공동 등재 되었으며, 이를 통해 몇 가지 중요한 역사적 사실을 그림으로 확인할 수 있다.[7] 일본에 비해 문서자료 등재가 많았던 국내 등재 기록물 중 통신사 행렬을 상세하게 연구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라 할 수 있다.

<그림 3> 한국 등재기록물 K.II-35 숙종37년통신사행렬도(肅宗37年通信使行列圖)

일본에 남아 있는 조선통신사 행렬도(行列図)는 막부(幕府)의 명령에 따라 그려진 기록물, 작자미상의 일본인이 행렬을 직접 보며 그린 회화 등 한국에 비해 많이 등재되었다. 일본의 여정의 기록 등재목록 27건 69점 중 6건 13점이 조선통신사 행렬도이다. 조선통신사행렬도는 한일 양국에서 제작되었으나, 1711년 일본에서 제작된 행렬도는 제작경위와 제작주체, 보관경위를 분명히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작품으로 한일 양국에 가장 잘 알려져 있는 기록물이다. 일본에 소재하는 여정의 기록은 세

7) 1682년 사행부터 파견된 양의(良醫)와 제술관(製述官)의 모습, 1711년 신묘(辛卯) 통신사가 4명의 역관(譯官)과 3명의 서기(書記)로 구성된 점, 1711년 대마도의 조선통신사 업무를 담당한 아메노모리 호슈(雨森芳洲)가 조선통신사를 수행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부산문화재단, 『조선통신사 소식지 통합본』 2019 봄호, 2019, 18쪽.

부적으로 향응기록(供応記錄), 기록화(記錄畵), 감상화(鑑賞畵)로 분류되고 기록화에는 행렬도(行列図), 선단도(船團図), 통신사를 대접한 향응상차림, 마상재 등으로 구성된 빙례행사도(聘礼行事図)로 나눠진다. 일본 등재 목록 행렬도는 조선통신사의 에도 도착 및 출발 시 행렬, 통신사를 호위하는 쓰시마번(對馬藩) 의 행렬, 조선의 국서(國書)를 장군에게 전달하기 위해 에도성(江戶城)으로 등성하는 행렬의 모습 등이 잘 묘사되어 있다. 행렬도를 시계열적 나열하면 도중(道中), 등성(登城), 귀로(歸路), 귀국(歸國) 행렬도(行列図)로 구성할 수 있다. 행렬도의 일본 등재 기록물 분류는 J.Ⅱ-7.8.9.10.11.12.13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기록물을 일본측의 신청서와 도록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덕도조선통신사행렬도권(正德度朝鮮通信使行列図卷, J.Ⅱ-7)는 1711년 신묘(辛卯) 통신사 사행을 그린 행렬도이다. 당시 정사(正使) 조태억(趙泰億), 부사(副使) 임수간(任守幹), 종사관(從事官) 이방언(李邦彦) 이하 당상역관(堂上譯官) 3인, 사자관(寫字官) 4인, 제술관(述官) 1인, 상관(上官) 45인, 중관(中官) 170인, 하관(下官) 274인 등 총 500명으로 구성된 최대 규모의 사행이었다. 한국의 등재 기록물인 숙종37년 통신사행렬도(肅宗37年通信使行列圖, K.Ⅱ- 35)와 함께 조선통신사 행렬을 연구, 분석하여 행렬을 재현하기 위해 반드시 참고해야 하는 기록

<그림 4> 일본 등재기록물 J.II-7
정덕도조선통신사행렬도권(正德度朝鮮通信使行列図卷)

물이다.

조선통신사참착귀로행렬도(朝鮮信使參着歸路行列図, J.Ⅱ-8) 역시 1711년 신묘(辛卯) 통신사 행렬도(行列図)로 위의 정덕도조선통신사행렬도권(正德度朝鮮通信使行列図卷)과 같이 제작된 14권 중 하나이다. 한일 양국 등재 기록물 중 행렬도와 관련해서는 가장 상세히 그려져 다양한 역사적 정보와 사실을 전하고 있다. 조선통신사 사절단은 에도(江戶)에 입성하기 전 구경 나온 일본 현지인들을 의식해 옷을 제대로 갖추어 입고 청도(淸道)기를 날리며, 악사(樂士)의 연주에 맞추어 절도 있는 위엄을 갖추고 행진을 하는데, 동 회화에서 그런 모습이 가장 잘 나타나 있다. 조선통신사 행렬의 웅대한 규모, 위엄, 현지인의 관심 등이 잘 묘사된 수작이라 할 수 있으며, 조선통신사 행렬 원형재현을 위한 가장 중요한 기록물의 하나로 평가 받고 있다.

<그림 5> 일본 등재기록물 J.II-8
조선통신사참착귀로행렬도(朝鮮信使參着歸路行列図)

소 쓰시마노카미 호행귀로행렬도(宗對馬守護行歸路行列図, J.Ⅱ-9)는 1711년 신묘(辛卯) 통신사 행렬도 14권 중 하나로 특징적인 것은 당시 통신사를 호위했던 쓰시마번(對馬藩)의 행렬 모습을 자세히 묘사하고 있다. 쓰시마 번주(蕃主)는 육로 이동 시 통신사보다 먼저 출발하여

안전성 확보, 숙식 등을 사전에 확인한 후, 주요 지점에서 통신사를 기다렸다가 합류하여 함께 이동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따라서, 본 기록물에서는 통신사가 모습은 보이지 않으며 행렬 전 쓰시마번(對馬藩)의 당시 행렬 상황을 그림으로 잘 보여주는 특징이 있다.

<그림 6> 일본 등재기록물 J.II-9 소 쓰시마노카미 호행귀로행렬도(宗對馬守護行歸路行列図)

시모노세키시립 역사박물관(下關市立歷史博物館)이 소장하고 있는 연향오년 조선통신사 등성행렬도(延享五年朝鮮通信使登城行列図, J.II-10)는 1748년 제 10차 사행을 그린 작품으로 당시 정사(正使) 홍계희(洪啓禧), 부사(副使) 남태기(南泰耆), 종사관(從事官) 조명채(曺命采)를 필두로 475명이 사행에 참가하였다. 9대 쇼군(將軍) 도쿠가와 이에시게(德川家重)에게 국서를 전달하기 위해 에도(江戶)에 입성하는 모습을 재미있게 묘사하고 있다. 동 기록물은 당시 행렬을 관람하던 군중 속 한 명이 그린 것으로 추정되는데, 통신사에 관련된 다양한 일화, 인물평, 소문 등을 기술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예컨대, 악사(樂士)들은 많이 먹고, 목소리가 크며, 술을 많이 마신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 귀중한 기록물은 당시 일본인들의 통신사에 대한 인식과 함께 조선의 문화에 대한 높은 관심이 잘 표현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조선통신사 행렬은 당

시 일본에 거주하고 있던 서양인 역시 높은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

조선통신사 일행을 에도 거리에서 구경한 나가사키(長崎)의 네덜란드 상관장 니콜라스 쿠케바겔(Nicloase Coukebacker)은 1월 4일의 일기에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1월 4일에 조선의 사절 두 사람이 그 일행과 함께 많은 일본인 귀족들을 뒤따르게 하고 황제가 있는 에도에 도착했다. 그리고는 다음과 같은 순서에 따라 숙사로 향했다. 먼저 무용, 피리, 북의 연주가 있고 50~60명이 짊어지고 안쪽에 붉은 비단 장막을 친 가마(국서 가마)가 그 뒤를 따르고, 잠시 후 여러 종류의 악기 연주가 시작되었다. 여기에 이어져 푸른 깃발을 손에 들고 말을 탄 젊은이들이 뒤를 따랐다. 마지막으로 조선사절의 예물과 짐을 운반하는 말이 약 일천 필이나 지나갔다. 이 행렬이 전부 지나가는 데 약 5시간이 걸렸다"[8]

<그림 7> 일본 등재기록물 J.II-10 연향오년 조선통신사 등성행렬도(延享五年朝鮮通信使登城行列図)

이 외에도 행렬도 관련 일본 등재 기록물은 에도 입성 전의 도중 행렬을 비롯하여, 대마도에서의 행렬 등이 그림에 자세히 표현되어 있다. 조

8) 조선통신사문화사업추진위원회회, 『마음의 교류 조선통신사 - 에도시대로부터 21세기에 보내는 메시지-』 중 "조선통신사와 일본의 민중(신기수)" , 2004, 195쪽.

선국신사 두루마리 그림 상하권(朝鮮國信使繪卷, J.Ⅱ-11)과 조선국 신사 그림 두루마기 문화도(朝鮮國信使繪卷 文化度, J.Ⅱ-12)는 나가사키현립 쓰시마역사민속자료관(長崎縣立 對馬歷史民俗資料館)이 소유한 두 작품은 일본의 국가중요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조선국신사 두루마리 그림 상하권(朝鮮國信使繪卷)은 1748년 또는 1764년 사행으로 추정되며, 에도 입성이 아니라 통신사의 도중(道中) 행렬을 묘사하고 있다. 조선국 신사 그림 두루마리 문화도(朝鮮國信使繪卷 文化度, J.Ⅱ-12)는 통신사가 대마도에 상륙한 후 이즈하라(嚴原)에서 행렬을 진행하는 모습을 담고 있다. 1811년 12차 마지막 사행은 양국의 재정난으로 간소화되어 대마도에서 국서교환을 하게 된, 이른바 역지빙례(易地聘禮)였다. 천화도 조선통신사 등성 행렬도 병풍(天和度朝鮮通信使登城行列図屛風, J.Ⅱ-13)은 오사카 역사박물관(大阪歷史博物館)이 소장한 기록물로 1682년으로 추정되는 등성행렬도를 병풍으로 만들었다. 부산에서 에도까지의 거리, 기항지간 거리, 오사카에서 에도까지 육로의 여정을 기록하고 있다.

2) 공동 등재 기록물 활용을 통한 조선통신사 행렬 원형 복원

국내에서 조선통신사 관련 문화교류 사업은 2000년대 들어 부산이 중심이 되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2001년 부산 바다축제의 일환으로 부산에서 조선통신사 행렬재현을 추진한 이래 2002년 한일 월드컵 기념행사 조선통신사 행렬재현을 거쳐 '조선통신사 축제'는 매년 5월 부산에서 개최하고 있는 부산의 대표 역사문화 축제로 자리 잡았다. 일본에서는 1980년부터 쓰시마를 중심으로 조선통신사 행렬재현이 시작되어, 현재는 시모노세키시(下關市), 히로시마시(廣島市), 후쿠야마시(福山市), 시즈오카시(靜岡市) 등 일본 각 지역에서 펼쳐지고 있다. 부산문화재단은 2010년 4월 26일, 당시 조선통신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던

(사)조선통신사문화사업회와 업무통합으로 동 사업을 총괄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일본 각 지역 및 문화예술단체와 다양한 형태의 문화교류를 통해 한일 간의 문화교류에 공헌해 왔다. 특히, 매년 5월 부산에서 조선통신사 축제를 시작으로 일본 연고지역에서 조선통신사 행렬재현 및 문화교류 공연을 공동 추진 내지는 상호 참가하는 등 오랜 기간 교류를 통해 상호 신뢰를 형성하고 있다.

세계기록유산 등재와 함께 직면한 문제는 이러한 일련의 문화 사업이 조선통신사 홍보를 위한 이벤트적인 요소에 치중했다는 점이다. 조선통신사 관련 전문가들 사이 철저한 역사적 고증과 원형 복원에 대한 논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부산문화재단은 조선통신사 세계기록유산 유네스코 한일 공동 등재를 계기로 조선통신사 기록물의 활용과 문화콘텐츠 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예컨대, 新조선통신사 사업의 일환으로 동경에서 행렬 원형 복원, 13차 新조선통신사 항해를 조선통신사 사업의 새로운 비전으로 설정하였다. 한일 공동 등재 기록물에는 조선통신사 행렬, 항해, 마상재에 관련된 역사적으로 다양하고 중요한 자료가 있어 이를 활용하여 조선통신사 문화자산의 원형 복원을 할 수 있다. 특히, 한일 양국에 분산되어 소장된 조선통신사 행렬, 선단도 등의 그림 기록물은 그림의 섬세함과 정교함으로 인해 행렬 및 항해에 관한 정보의 구체성과 역사적 사실을 잘 보여준다. 한일 양국 등재 기록물 활용을 통해 조선통신사 사행 시기별, 대상별, 장소별 원형 복원이 가능하다. 조선통신사 행렬도 기록물에 내재된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문화 콘텐츠의 다양한 방식으로 개발하여 홍보 및 활성화 전략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조선통신사 행렬 원형 복원은 시간, 공간, 대상을 중심으로 한 역사적 실증자료를 고증 할 때 문화자산의 활용이라는 의미가 있다.

행렬 원형 복원은 행렬도를 시간적으로 구성 할 때 1711년 신묘 통신

사의 등성행렬도가 기준이 될 수 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등재 기록물인 인조14년통신사입강호성도(仁祖14年通信使入江戶城圖)는 등성행렬도(登城行列圖)로 제13차 新조선통신사 계획 시 통신사 일행이 동경에 들어가는 모습을 분석하여 원형 복원 가능하다. 일본의 여정 기록 등재목록 중 1711년 신묘 통신사 사행 때 일본에서 제작된 행렬도는 제작경위와 제작주체, 보관경위를 분명히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작품으로 조선통신사 행렬 원형 복원에 대한 철저한 고증과 연구가 가능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대마도 행렬 원형 복원도 가능하다. 일본의 등재기록물 소 쓰시마노카미 호행귀로행렬도(宗對馬守護行歸路行列図, J.Ⅱ-9)는 1711년 신묘(辛卯) 통신사 행렬 당시 통신사를 호위했던 쓰시마번(對馬藩)의 행렬 모습을 자세히 묘사하고 있다. 행렬 전 쓰시마번(對馬藩)의 당시 행렬 상황이 잘 나타나고 있어 이를 통해 대마도 행렬 역시 원형에 충실 할 수 있다. 일본 본토 행렬에도 육로 이동 시 통신사보다 먼저 출발하여 안전성 확보, 숙식 등을 사전에 확인한 후, 주요 지점에서 통신사를 기다렸다가 합류하여 함께 이동하는 역할 쓰시마번주의 역할도 등재 기록물의 활용을 통해 원형 복원 할 수 있는 것이다. 조선국신사 두루마리 그림 상하권(朝鮮國信使繪卷)은 에도 입성이 아니라 통신사의 도중 행렬을 묘사하고 있으며, 조선국 신사 그림 두루마리 문화도(朝鮮國信使繪卷 文化度, J.Ⅱ-12)는 통신사가 대마도에 상륙한 후 이즈하라(嚴原)에서 행렬을 진행하는 모습이 담겨져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고증도 필요하다. 향후, 부산문화재단,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대마도가 계획하고 있는 제13차 新조선통신사 항해와 대마도 행렬 시 조선통신사 원형복원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기록물 활용을 통해 문화 콘텐츠로 재현될 것이다.

2. 조선통신사선 항해

1) 선단도(船團圖)한일 등재 기록물

국내 등재 목록 중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한 국서누선도(國書樓船圖,K.Ⅱ-38)의 그림 자료는 국내 등재 목록 중 유일한 선단도(船團圖) 기록물이다. 국서누선도는 통신사행이 탄 배가 조선 국왕의 국서를 받들고 오사카의 요도가와(淀川)를 지나는 장면을 그린 작품이다. 국서선(國書船), 부사선(副使船), 종사관선(從事官船) 및 예인선(曳引船), 수행선(隨行船)이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다. 그림이 제작된 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막부(幕府)의 어용화가가 그린 것으로 추정된다. 아래의 그림8은 선단도 중 일본의 가와고자부네선을 묘사하고 있다.

<그림 8> 한국 등재기록물 K.II-38 국서누선도(國書樓船圖) 중
일본의 가와고자부네선

일본의 여정의 기록 기록화에는 조선통신사선과 항해를 테마로 기록물을 분류(J.Ⅱ-14.15.16.17.18)한 선단도(船團図)가 있다. 선단도(船團図)는 세토나이카이(瀨戶內海)를 항해하는 조선통신사선항행도(朝鮮通信使船航行図)와 요도강(淀川)을 올라가는 가와고자부네도(川御座船図)로 나누어진다. 조선통신사선항행도(朝鮮通信使船航行図)는 쵸슈번(長州藩)의 군선 등의 경호와 선박을 지정된 장소까지 끌어당기거나 밀어서 이동시키는 예항(曳航)으로 카미노세키(上關)에 입항하는 통신

사선, 오카야마번(岡山藩)의 경호와 예항으로 비젠(備前) 앞바다에서 정박해 있는 통신사선을 그린 것이다. 통신사선과 조선통신사 접대를 맡은 각 번(藩)이 통행을 지원하는 모습을 알 수 있으며, 특히 통신사선을 본 일본 서민들의 솔직한 감상이나 경이로움에 대한 기록이 그림에도 표현되어 있다. 카고자부네도(川御座船図)는 조선통신사가 요도강 상류로 가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통신사는 오사카에서 야마시로(山代), 요도강(淀川)까지를 막부(幕府)나 시코구(四國) 여러 번(藩)이 준비한 카와고자부네(川御座船)를 이용하는데, 이것이 통신사 관람의 절정으로 카와고자부네(川御座船)는 호화스러움을 겨루었다.[9]

조선인 래조각 비젠고치소선행렬도(朝鮮人來朝覺備前御馳走船行烈図, J.Ⅱ-14)는 일본측의 등재 목록 중 조선통신사선 선단도에 관한 다양한 정보와 역사적 사실을 당시 일본인 군중의 눈에 비친 모습을 통해 사실적으로 기록하고 있다. 1748년 통신사가 세토나이카이(瀨戶內海)에 배를 정박한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통신사선의 구조와 장비, 해상 경호, 배 이름, 승원수, 선장의 이름 등이 기록되어 있다. 길이 8미터 이상에 달하는 만화 같은 그림은 정사기선, 정사복선, 부사기선, 부사복선, 종사관기선, 종사관복선의 선단도를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특히, 동 기록물은 역사적 사료로서의 정확성을 증명하는 부분이 정확히 그려져 있어 그 가치를 더 하고 있다.[10] 뿐만 아니라,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동 기록물을 통해 조선통신사선에 치[11]의 구조로서 방향을 전달하는 창나무[12]가 전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선미 방향으로 연결되어 있는 점

9) NPO法人 朝鮮通信使縁地連絡協議會, 위의 책, 32쪽
10) 1748년 사행에서는 쓰시마에서 부사기선이 불타버려 정사복선(화물선)을 부사의 배로, 부사 복선을 정사복선으로 부사 복선은 쓰시마 번의 배로 대체하여 사용한 기록이 남아 있다. 동 그림에서는 부사의 복선이 다른 통신사의 배에 비해 규모가 작은 일본 배라는 점이 명확히 그려져 있다.
11) 키(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우리배 용어사전』).
12) 키의 손잡이(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우리배 용어사전』).

을 최초로 확인하였다.[13]

<그림 9> 일본 등재기록물 J.II-14 조선인 래조각
비젠고치소선행렬도(朝鮮人來朝覺備前御馳走船行烈図)

조선통신사선 가미노세키 래항도(朝鮮通信使船上關來航図, J.Ⅱ-15)는 6척의 조선통신사선이 카미노세키(上閑)에 입항하는 모습을 그린 기록물로 진행 방향에서 볼 때 조선으로 돌아가는 기항인 것으로 보인다. 60.3센티미터, 폭 86.8센티미터의 그림을 확대해서 자세히 보면 조선통신사 선단도의 구성을 명확히 이해 할 수 있다. 쵸슈번(長州藩) 수군 배를 선도로 하여 쓰시마 번주가 탄 고자부네(御座船)와 조선통신사선 6척이 뒤를 따르는 것을 기록물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동 기록물은 당시의 카미노세키의 지형과 가옥구조, 풍경 등이 역시 잘 묘사되어 있다. 일본에서도 조선통신사 선박이 입항하는 모습을 그린 회화는 몇 점 밖에 확인되지 않아 조선통신사 선단도를 기록한 매우 귀중한 사료로 평가받고 있다.

13)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조선시대 그림속의 옛배』, 2010, 52~53쪽

<그림 10> 일본 등재기록물 J.II-15
조선통신사선 가미노세키 래항도(朝鮮通信使船上關來航図)

이 외에도 선단도 관련 일본 등재 기록물은 1711년 신묘 통신사 선단을 그린 오사카역사박물관(大阪歷史博物館)이 소장하고 있는 정덕도 조선통신사 국서 선도 선도 병풍(正德度朝鮮通信使國書先導船図屛風, J.Ⅱ-16)와 정덕도 조선통신사 상상관 제삼선도・공선도(正德度朝鮮通信使上々官第三船図・同供船図, J.Ⅱ-17)가 있다. 두 회화는 조선통신사선, 카와고자부네의 선단 배치가 잘 표현되어 있다. 통신사선과 카와고자부네를 둘 다 상세히 표현한 대형 회화 작품은 극히 드물어 통신사 영접체제 복원 및 그 연구를 진행하는데 매우 귀중한 자료이다. 조선통신사 어루 선도 병풍(朝鮮通信使御樓船図屛風, J.Ⅱ-18)은 요도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통신사 사절단을 그린 병풍으로 중앙에 그려져 있는 배는 막부의 배인 어루선(御樓船)이다.

2) 조선통신사선 항해 원형 복원

국서누선도(國書樓船圖) 기록물에서 보이는 국서선(정사선)은 2018년 10월 26일 문화재청 산하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가 원형 복원하였다.[14] 상기 등재 기록물에서도 묘사되었듯이 조선통신사 12회 사행동안 이용된 선박은 일본과 대외활동을 위해 국가가 제작한 것으로 화려한 궁궐단청과 비단으로 장식된 건축물 형태의 선박이었다.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가 재현한 조선통신사선은 9차, 11~12차 사행에 활동한 정사기선을 모델로 하였다. 또한 태안 마도 해역에서 수중 발굴된 조선시대 '마도4호선'을 참고한 결과 우리나라 한선 중에서 가장 큰 선박으로 웅장하고 궁궐단청과 산수 등 벽화로 장식된 화려한 선박으로 밝혀졌다. 재현된 통신사선은 강원도 삼척, 홍천, 태백, 정선 등에서 확보한 금강송 소나무 900여 그루가 사용되어 한단한단 맞추어 올렸다. 선재의 수령은 보통 70~100년, 중요 부재는 100~150년에 이르는 소나무가 각각의 구조에 맞게 사용되었다.[15]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보고서에 의하면 통신사선 기록은 1763년 계미수사록(癸未隨槎錄), 1802년 증정교린지(增政交隣志) 등 문헌 자료와 한일 양국에서 소장하고 있는 회화자료를 참고하여 조선통신사선을 복원하였다. 문헌 속 통신사선 기록물의 대표적 자료는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국내 등재 기록물(K.Ⅱ-28)인 변탁의 계미수사록이다. 저자 변탁은 동래부의 장교로서 사행선의 건조에도 참여 했으며, 건조과정은 물론 격졸의 선정에 이르기까지 동래부에서 이루어진 통신사행 준비과정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선박 건조 과정과

14) 목포에 위치한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조선통신사 정사선 원형 복원을 위하여 21억원의 예산을 들여 1년 8개월의 제작과정을 거쳤는데, 150년 이상된 금강송 약 900본을 사용하여 34m× 9.3m × 3.0m 규모의 배를 현대적으로 복원하였다.

15) 홍순재, 「조선통신사선 재현방법과 활용계획」, 『조선통신사소식지』 2018 가을호, 부산문화재단, 2018, 10쪽

구조에 관한 내용이 계미수사록에 18개 항목으로 정리되어 있다. 특히, 선박 건조에 사용되는 원목의 벌채와 수송, 배 만드는 목수의 급료 지급 등의 내용이 상세히 다루어져 있다.[16] 회화 자료는 일본에서 소장하고 있는 다양한 기록물을 참고하였는데, 통신사선 복원 시 그림과 회화자료는 통신사선의 외형 구조와 형태, 단청과 벽화 등을 알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하였다. 이중 대표적인 것이 일본 측 등재 목록인 J.Ⅱ-14 조선인 래조각 비젠고치소선행렬도(朝鮮人來朝覺備前御馳走船行烈図), J.Ⅱ-15 조선통신사선 가미노세키 래항도(朝鮮通信使船上關來航図)이다.

부산문화재단과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복원된 조선통신사 정사선을 활용하여 2018년 10월 이래 다양한 문화사업을 펼치고 있다. 각종 문헌, 회화, 연구자료, 전문가 고증을 토대로 복원된 선박은 부산문화재단과 함께 조선통신사 축제 등 각종 해양문화행사 참여로 항해재현 및 승선 체험 학습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움직이는 조선통신사 선상박물관으로 운영도 가능하게 되었다. 한일 공동 등재 기록물 중 선단도에 나타난 조선 통신사선이 현대적으로 복원되어 과거의 역사적 항해를 재현하고 있는 것이다. 2019년 5월 부산에서 개최된 조선통신사 축제에 정사선의 웅장한 모습이 부산항을 장식하였다. 조선통신사 출항 뮤지컬 공연, 출항식, 항해 체험, 선상 박물관 운영을 통하여 조선통신사 한일 공동 등재 기록물인 선단도가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되었다.

조선통신사의 일본 첫 기항지 대마도는 예로부터 대륙과 일본간 교류에 중요한 역할을 한 곳이다. 이곳에서는 매년 8월 첫 주말, 쓰시마 이즈하라항 축제가 개최되는데, 축제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바로 조선통신사 행렬 재현이다. 부산문화재단은 매년 대마도 조선통신사 행렬재현

16)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전통선박 조선기술 Ⅵ 조선통신사 정사기선』, 2019, 17~21쪽에는 관련된 상세한 내용을 참고할 수 있다.

에 참가하고 있다. 2019년 8월 축제에는 특별히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에서 복원한 조선통신사선(재현선)이 이즈하라항 축제 기간에 쓰시마에 입항하여, 1811년 12차 마지막 통신사가 일본 대마도로 파견된 이후 200여년 만에 항해를 계획 했었다. 이른바 新조선통신사로 부활하여 실시되는 13차 대마도 사행은 그 역사적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17] 부산문화재단,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대마도는 원형 복원한 조선통신사선박을 활용하여 제13차 新조선통신사 일본 항해와 행렬재현을 재계획하고 있다. 한일 공동 등재 기록물이 현장에서 원형으로 복원되어 다양한 문화콘텐츠와 결합이 되는 문화기획이 가능할 것이다. 조선통신사 기록물의 홍보 및 활용이 문화콘텐츠로 완벽히 구현되는 첫 시작은 조선통신사선이 현해탄을 건너 대마도에 상륙하는 것이다.

3. 마상재(馬上才) 재현

조선통신사 행렬 재현, 조선통신사선 복원에 이어 문화 유산적 가치에 주목해야 할 대표적인 조선통신사 콘텐츠는 마상재(馬上才)이다. 아쉽게도 국내 등재 기록물에는 마상재 관련 자료가 없으나, 일본 측 등재 기록물인 마상재도권(馬上才図卷, J.Ⅱ-22)은 쓰시마시 지정문화재이며, 고려미술관(高麗美術館)이 소장한 마상재도(馬上才図, J.Ⅱ-23)는 기록물의 귀중한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마상재는 도쿠가와 이에미쓰(德川家光)가 특별히 방일 요청한 것으로 1636년 사행부터 시작되었다. 에도성(江戶城) 안에서 쇼군(將軍)이 관람한 후 우에노(上野)에서 사행원의 활쏘기 곡예 때도 실시되어 당시 가장 높은 인기를 자랑했다. 이른바 한일 문화교류를 통한 선린우호의 상징이자 한류의 원조로서 마상재

17) 부산문화재단,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대마도가 2년간 준비한 동 계획은 한일관계 악화로 인해 중지되었다.

는 '천하제일의 기예'로서 평가 받았다.

마상재도권(馬上才図巻)은 말 위 곡예 장면과 일본인의 조선말 관찰 장면 등 모두 15개 장면에 걸쳐 있어 여타 현존하는 마상재 회화자료보다 마상재의 독특하고, 다양한 장면을 묘사하고 있어 가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 그림에는 14형태의 여러 곡예 모습과 일본사람이 마상재를 관찰하는 한 장면이 있으며, 다른 책에 비해 많은 장면을 기록하였다. 곡마 묘사는 약동감이 있고 색채도 아름다워 높은 평가를 받는 작품으로 1719년 사행 때 그려진 것으로 추정된다. 3대 쇼군 도쿠가와 이에미츠(德川家光)는 소문으로만 듣던 조선의 마상재 보기를 희망하여 쓰시마번에 명령을 내려 마상재 시연을 교섭토록 하였다. 조선에서도 이를 승낙하여 1636년 4차 사행 때 처음으로 마상재가 수행하여 기예를 선보였다. 동 회화는 1711년 신묘 통신사와 함께 온 두사람의 마상재인(馬上才人) 지기택(池起澤)과 이두흥(李斗興)이 펼친 말위에 서는 마상립(馬上立), 물구나무서기인 마상도립(馬上倒立), 쌍마위에 서서달리기인 쌍마(雙馬) 등 8종의 묘기를 풍부하게 표현하고 있다.[18]

<그림 11> 마상재도권(馬上才図巻, J.II-22)

18) 조선통신사문화사업추진위원회, 『마음의 교류 조선통신사-에도시대로부터 21세기에 보내는 메시지-』, 230쪽

고려미술관에 소장된 일본 측 등재 기록물인 마상재도(馬上才図, J.Ⅱ-23)는 1748년 사행때 당대 최고의 우키요에(浮世繪) 화가인 토리이 키요노부(鳥居清信)의 작품이다. 에도의 쓰시마번(對馬藩) 저택에서 진행된 예행연습의 모습과 쇼군(將軍) 앞에서 공연한 장면을 조합한 것으로 추측되는데, 당시의 내용은 이렇게 묘사되어 있다.

> "담장 밖으로 혁명기와 청도기가 나부낀다. 담장 안 넓은 마당에는 일본의 고위 관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조선통신사의 마상재인이 말 위에서 부채를 펼치고 서거나 물구나무를 서는 재주를 펼친다. 넓은 대청에는 상관인 듯한 일본인이 손가락으로 그 광경을 가리키며 부하와 대화를 나눈다. 그의 뒤로 장지문사이로 화려한 치장을 한 귀족 부인들도 발을 드리운 채 마상재를 바라본다."[19]

<그림 12> 마상재도(馬上才図, J.Ⅱ-23)

19) 한태문, 「한일 선린우호의 상징, 마상재」, 『조선통신사소식지』 2018 봄호, 부산문화재단, 2018, 8쪽.

마상재는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말의 공출과 신식 군대 출연으로 인한 총포의 발달과 함께 무예로서 가치를 잃으면서 전승이 끊어졌다. 그 후 마상재는 1990년대부터 몽골 출신의 기수들이 국내 축제, 이벤트 행사에 등장하기 시작하였으나, 2000년 이후 '한민족마상무예격구단' '한국마상무예학교' '조선통신사 기념사업회 마상재공연단'등의 단체가 설립되면서 마상재를 복원하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해졌다. 특히, 조선통신사 기념사업회 마상재공연단에서는 관련 기록물을 토대로 동작을 재연하고 있으며, 조선통신사 전별연(餞別宴)이 펼쳐졌던 영천시 조양각(朝陽閣)앞에서 매월 2회의 시연과 교육을 하고 있다.[20] 2018년 부산의 조선통신사 축제에서도 처음으로 조선통신사 행렬 재현 시 마상재 공연을 선보였다. 아쉬운 점은 자료와 역사에 충실한 해석을 통한 마상재 재현이 되지 못했다. 복식에서부터 용어, 도구, 복식, 장면, 장소성 등 일본의 등재 기록물 자료를 활용하지 못한 체 단순한 문화 이벤트로 끝나고 말았다. 마상재의 원형 복원은 결국 장소성과 함께 할 때 그 의의를 더욱 찾을 수 있다. 향후, 마상재 재현의 첫 시작은 대마도에서 마상재 연습과 마상립(馬上立), 마상도립(馬上倒立), 쌍마(雙馬) 등의 시연을 통해 마상재도(馬上才図) 기록물의 활용을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이다.

Ⅴ. 결론

조선통신사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한일 공동등재는 한일 양국이 민

20) 조선통신사 전별연이 펼쳐졌던 경북 영천시는 2013년부터 마상재복원 심포지엄 등을 개최하면서 조선통신사 영천마상재의 무형 문화재 등재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영천문화예술제를 통해 마상재 공연과 조선통신사 행렬을 재연하고 있다.

간주도로 이루어낸 성취이자, 지역문화의 저력을 과시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조선통신사는 일본의 침략전쟁으로 단절된 한일 양국의 외교관계를 회복하고 대등한 교류를 통해 상호인식의 폭을 넓힘으로서 양국은 물론 동아시아의 평화구축에 크게 기여했다. 조선통신사 관련 기록물은 한일 양국이 대립과 갈등을 넘어 평화 구축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으로 세계에서 그 유례가 드문 만큼 인류가 보존해야 할 가치가 있는 세계기록유산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조선통신사 기록물이 아카이빙으로만 존재할 시 세계기록유산의 의미는 반감될 수 있다. 기록물의 활용을 통해 유산이 가지는 인류 보편적 가치를 세계인이 공유할 때 그 가치가 더욱 빛을 발할 것이다. 기록물을 다양한 형식으로 홍보 및 활용하는 사업이 적극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일 공동 등재 기록물 중 그림자료를 중심으로 '보존의 기록물'이 조선통신사 행렬 복원, 통신사선의 항해, 마상재 재현이라는 문화 콘텐츠를 통해'활용의 기록물'로 역할하게 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한일 등재목록 중 관련 기록물인 행렬도, 선단도 등을 활용한 원형 복원의 가능성 역시 분석하였다. 부산문화재단은 일본의 연고도시와 협력하여 2020년 동경올림픽 조선통신사 행렬재현을 전 세계에 발신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 19로 인해 무산되었다. 앞서 복원된 조선통신사선을 활용한 대마도 13차 新조선통신사 사행 계획 역시 경색된 한일관계로 잠정 연기되었다. 이러한 시점에서 세계기록유산을 활용한 조선통신사 행렬 원형 복원은 국가 간 문화적 상대성과 다양성을 이해하여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갈등을 극복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과거 조선통신사의 교류를 통한 성신교린의 정신이 향후 조선통신사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의 홍보와 활용의 新조선통신사로 이어질 것이다.

끝으로 조선통신사 한일 문화교류사업과 기록물의 한일 공동 등재과정에서 축적된 다양한 자료들에 대한 관리 및 활용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부산이라는 지역성이 가진 新조선통신사는 과거의 기록물, 등재 기록물뿐만 아니라 조선통신사 한일 교류를 통해 생산된 다양한 자료 역시 미래 세대를 위해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가지기 때문이다. 코로나19와 함께 도래한 4차 산업 혁명의 가속화, 그 정점에 있는 빅데이터의 활용은 이제 문화 전 영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조선통신사 기록물의 빅데이터는 한일 양국 긍정의 기억과 시대의 문화를 표현한 국민공통의 문화유산이며 잡지, 서적, 그림, 사진, 영상, 인터넷, 이메일, SNS 등 다양한 매체들과 함께 역사의 흔적을 기록하고 보존할 것이다. 바로 한일 '긍정의 문화기억보존소'로서 한일 미래 세대를 위한 집단의 문화적 기억을 형성 할 것이다. 특히, 등재과정 중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쌓인 양국 교류의 긍정적 기억도 결코 잊혀 져서는 안 될 것이다. 등재과정의 문화적 기억에 대한 방송, 영상, 이미지 자료의 체계적인 아카이빙을 통한 한일 양국의 新조선통신사 빅데이터 창고 구축 역시 반드시 필요하다. 조선통신사의 본거지이자 한일 교류의 거점도시 부산의 새로운 사명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조선시대 그림속의 옛배』, 2010.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전통선박 조선기술 Ⅵ 조선통신사 정사기선』, 2019.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우리배 용어사전』, 2020.
부산문화재단, 『2017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기념 도록 [조선통신사에 관한 기록] 』, 2018.
_____, 『조선통신사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한일 공동 등재 2006일의 기록』, 2018.
_____, 『조선통신사 UNESCO 세계기록유산 한일 공동 등재 기념 자료집』, 2018.

_____,『조선통신사 옛길을 따라서 1』,한울, 2014.
_____,『조선통신사 옛길을 따라서 2』,한울, 2014.
_____,『조선통신사 소식지』2018 봄호, 2018.
_____,『조선통신사 소식지』 2018 가을호, 2018.
_____,『조선통신사 소식지』2019 봄호, 2019.
장경준,『UNESCO 세계기록유산 통신사 기록물의 보존과 활용 - 부산박물관 소장품을 중심으로 -』,『조선통신사연구』28, 2018.
조선통신사문화사업회,『조선통신사 옛길을 따라서 3』,한울, 2009.
조선통신사문화사업추진위원회,『마음의 교류 조선통신사 - 에도시대로부터 21세기에 보내는 메시지-』, 2004.
조혜인,『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조선통신사 행렬도> 연구』,『조선통신사연구』28, 2019.
황은영,『17세기 후반 ~ 18세기 중반 통신사행 회화자료의 특성 연구』,『조선통신사연구』30, 2020.

NPO法人 朝鮮通信使縁地連絡協議會,『ユネスコ[世界の記憶] 朝鮮通信使に關する記錄』, 2020.
ユネスコ記憶遺産,申請書(日本側の登錄對象リスト(https://enchiren.com/kiokuisan/shinsei/japan_documents, 검색일: 2021. 4. 10.).

투고일 : 2021. 05. 07. **심사완료일 :** 2021. 06. 23. **게재확정일 :** 2021. 07. 07.

| Abstract |

A Case Study on the Restoration of Historical and Cultural Content Utilizing UNESCO Memory of the World, Joseon Tongsinsa

Cho, Jung-Yun

Joseon Tongsinsa, a symbol of peaceful relations by overcoming conflicts and warfare between Korea and Japan from the 17th to 19th Century, is significant cultural heritage for mankind and the documents have been jointly registered as a UNESCO Memory of the World by both countries. In the case of Busan city, leading the registration process, Joseon Tongsinsa has historically been a priceless cultural asset for Korea-Japan exchange. The task of not only well preserving the documents but also utilizing the records and archives of the UNESCO Memory of the World is to spread its value, significance and authenticity. Through the use of the archives, people around the world need to share the universal value of human beings, which is the peaceful relationships between neighbouring countries.

In the respect, this study analyzes the inscribed painting documents, focusing on the journey of Joseon Tongshinsa such as the parade and sailing, Masangjae, the horse riding performance, and provides a perspective of the documents of utilization through the reenacting cultural contents. The restoration of the key records of Joseon Tongshinsa envoys will suggest a new future for improving future-oriented relations between Korea and Japan

Key Words : Documents on Joseon Tongsinsa, UNESCO Memory of the World, History of restoration, The journeys of Joseon Tongsinsa, Cultural contents of Joseon Tongsinsa, New Joseon Tongsinsa